



# 뉴코아 · 이랜드 파업 경찰력 투입 비정규직 짓밟은 노무현은 물러나라

노무현 범죄 정부가 또다시 역사를 더럽힐 천  
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뉴코아 강남점과 홈  
에버 상암점에 1만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노  
동자들을 폭력 해산시킨 것이다.

이 범죄 행위에는 수백여 명의 경찰특공대와  
물대포, 전기 드릴, 대형 해머, 절삭기까지 동  
원됐다. 이것은 “1979년 YH 농성 강제 해산을  
떠오르게”(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하는 일이  
며 “전두환이 광주에 군대를 보낸 것과 같은 상  
황”(노회찬 의원)이다.

YH 여성 노동자 강제 해산이 박정희 유신독  
재의 몰락을 가져왔고, 광주 학살이 전두환 정  
권의 몰락을 가져 왔듯이 이제 폭력적 신자유  
주의 정권 “노무현 정부의 비참한 말로만 남  
은”(문성현) 셈이다.

그동안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은 노  
동자의 해방구였다. 이 두 개의 강력한 제트엔

진은 한국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 주역은  
여성 · 어머니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박성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이들은 약해 보였다. 그  
러나 이들이 무릎을 펴고 당당히 싸우기 시작하  
자 강력한 힘을 가진 거인이라는 게 명백해졌  
다. 이제 홈에버 · 뉴코아 각 매장들은 조합원들  
이 나타나기만 해도 셔터를 내릴 정도로 노동자  
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잔인무도

매출에 타격을 가하고, 전국적 연대의 초점을  
제공하는 점거 파업의 가공할 힘 때문에 이랜드  
박성수는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보잘 것  
없지만 양보의 시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  
범한 파업 지지 밑바닥 여론은 갈수록 번져갔다.  
7월 13일 CBS 여론조사 결과 이랜드 사태에 ‘노

동조합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3퍼센트에 불  
과했다. 심지어 이랜드 사목인 방선기조차 “회사  
경영진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인정해야 했다.

비정규직 악법의 문제점을 단박에 드러낸 이  
랜드 파업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 투쟁과 승리에  
도 기여했다. 코스콤비정규직지회의 승리, 부산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의 승리, 청주대 청소 노  
동자들의 승리가 이어졌다.

반면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 악법에 따른 차  
별시정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기만적 악법  
의 허울뿐인 차별시정에 기대기보다 단결과 투  
쟁을 통한 차별 시정이라는 뚜렷한 대안이 제시  
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홈에버 대표 오상훈은 “과연  
이 나라가 시장경제 · 자유민주주의가 맞냐는  
암담함과 좌절감”을 털어놓았고, <조선일보>는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계속

“회사에 몰매를 주고 백기향복을 강요하는 제 2의 이랜드 사태가 속출할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점포를 점거하는 자들이 체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이랜드가 직원에게 내린 기도문) 바란 박성수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노무현은 박성수의 애타는 기도에 화답해 잔인 무도한 노동자 고립·봉쇄 작전을 시작했다. 전기가 끊겼고, 모든 출입구가 용접됐고 가족간의 생이별이 강요됐다. 이제 농성장은 “다섯살 짜리 아이도 엄마를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칠순 노모도 딸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기자도 의사도 인권단체도 들어갈 수 없는”(송경동 시인) 곳이 됐다. 국가인권위도 이것은 “‘여수 참사’를 넘어서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노동부장관 이상수)고 본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강행했다. 경찰력 투입 반대 인터넷 서명에 반나절만에 1천3백 명이 서명하고, 범여권 대선 후보인 신기남·천정배마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로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전쟁하기 좋은 나라’만을 위해 이라크 파병, 한미FTA를 강행했듯이 노무현은 이번에도 막무가내였다. 경총은 즉각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의 지적처럼 “이것은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노무현의 패배”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찰력 투입은 “이랜드 전국 매장의 점거 농성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다시 제2·제3의 거점을 점거하고 투쟁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력 투입 직후 대선후보 3명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26명도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권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정부와 노동계 전체의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며 걱정했다.

이제 ‘노동계 전체의 전면전’으로 이 파렴치한 노무현과 박성수를 쓸어버리는 일만 남았다.

# 점거 파업의 새 거점과 전국적 힘의 집중이 필요하다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은 “오늘까지는 2라운드”라고 말했다. 2라운드까지 진행되면서 이 투쟁은 이제 전체 노동자와 전체 지배자들간의 대리전으로 발전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이 투쟁이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는 문제”가 됐다고 했다. 비정규직 차별·확대의 정책 기조를 유지·변경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한판 싸움이 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 투쟁에 전국적인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 간부들이 3명이나 연달아 연행된 것, 민주노총 이상무 경기본부장의 구속, 건설노조 김호중 경기서부지부장의 구속,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구권서 전 의장 구속도 모두 이랜드 파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하투를 겨냥한 것이다.

## 엔진

연세의료원 파업,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 파업,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대제철 파업 등 노동계 하투에서 태풍의 핵은 바로 이랜드 점거 파업이다. 특히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은 엔진 구실을 했다.

경찰력 투입은 바로 이 엔진을 꺼트려서 노동계 하투라는 열차 전체를 세우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랜드·뉴코아 지도부가 결의했듯이 제2·제3의 거점을 만들어 점거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

새로운 거점이 없다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자신감과 결속력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 지난 20일 동안의 점거 파업이 입증했듯이 그럴 때만 매출에 타격을 가하며 전국적 초점을 제공할 수 있다. 파업 거점이 없다면 예전처럼 박성수는 협상은커녕 노조

를 거들떠도 안 볼 것이다.

이런 투쟁을 지도할 강력한 뉴코아·이랜드 2선 지도부가 빨리 세워져야 한다. 새로운 2선 지도부는 정부의 탄압뿐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라는 내외부의 압력에 맞서서 아래로부터 조합원들의 투지에 의존해 강력한 투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강력한 연대도 시급하다. 노무현과 기업주들이 전국적인 힘을 집중하듯이 우리도 전국적인 힘의 집중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타워크레인노조가 이랜드 투쟁 연대를 함께 내걸고 오늘 새벽 전국 105곳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무기한 고공농성을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금속노조도 오늘 ‘이랜드 매장 타격 투쟁 긴급 지침’을 내렸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주요 대형노조 지도부들은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연대 집회·파업을 건설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급단체 지도부가 중간에서 적당한 수준의 타협을 종용한다는 식의 얘기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산별노조와 연대 파업은 바로 지금 필요한 무기이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연대 파업 내지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화물·덤프 차량으로 모든 이랜드 매장을 둘러쌀 수도 있다. 나같은 생각의 조합원이 아주 많다”는 글을 남겼다.

무엇보다 7월 21일 ‘매출 제로 투쟁’을 통해 승리할 때까지 장식하기 위해 총력 동원해야 한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호소하듯이 21일은 “이랜드 자본 심판의 날”이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간의 설움과 한을 씻고 활짝 미소짓는 날”이 돼야 한다.

이제 시작된 제3라운드에서 노무현과 박성수에게 무참한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 단호한 투쟁과 강력한 연대를 건설하자.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주간 <맞불> 을

정기 구독 하십시오

<맞불>은 '다함께'가 발행하는 주간신문입니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